

## Week 5

이사야 25:6-9 “식탁 위에 모이다” (“Gather at the Table”)

### 여는 기도:

사랑의 하나님,  
저희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며, 다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저희 자신의 모습을 자주 발견합니다. 다른이들의 경험과 삶의 모습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이질적이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다른이들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사랑하는데 나아가기까지는 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요구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다른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신께서 저희가 행하기 원하시는 일임을 잘 압니다. 그렇기에 기도하는 것은, 차이를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과 인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창조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읽으세요. 서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소리내어 읽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문의 내용 중 특별히 눈에 들어오거나 마음에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까? 혹은 잘 이해되지 않아 관심을 끌거나 궁금증을 자극하는 본문의 내용이 있나요?

C.S. 루이스의 널리 알려진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갈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소원하시고 계신 것들의 단서(hints)이자 메아리(echoes)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갈망들은 종종 우리의 창조주께서 그의 창조물들을 향해 담고 있는 소원을 반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갈망들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는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곤 합니다.

지구상의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좋은 음식과 마실 것에 대한 보편적인 갈망이 가르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런 갈망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셔서 주신 선물들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문화와 사회 가운데, 연회와 축제를 함께 즐기고 기뻐하는 모습들은 인간 경험 전반에 걸쳐 존재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좋은, 나은 날이 도래한다면, 그 변화의 증거로 가장 먼저 보기 원하는 것은 그들의 식탁 위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매일 건강하지 못한 라면만 먹다가 Chipotle(미국에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한다고 알려진 멕시코음식 레스토랑)와 같은 곳에 건강한 음식을 접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낄 것 입니다. 이사야는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의 살롬에 모습을 영광스러운 축제와 연회의 모습으로 그려나가도록 반복적으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사야 25 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비전은 생명으로 가득차고, 열매가 풍성히 넘치면서도, 결코 고갈되지 않는 창조의 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모든 열방으로부터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의 향기와 기쁨 충만한 가운데 약속에 잔을 나누는 그 자리로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될 것 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거룩한 축제의 식탁에 모두 모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의 서로에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베일과 장막이 떠나간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면 마침내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참된 유대감을 느끼게 될 것 입니다. 그때가 오면, 서로 안에서 참된 기쁨을 맛보며, 우리 안에 분열을 일으켜 왔던 인종, 언어,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서 오는 차이들은 되려 축제와 경이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될 것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역사의 결과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와 구속, 그리고 재창조의 역사이며, 그 역사의 장엄함은 오직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것이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 토론해볼 주제:

이사야 25 장은 창조와 구속의 주제들(themes)이 어떻게 서로 섬세히 엮여져 있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모범입니다. 창조와 구속을 둘러싼 낱말과 씨실의 역임에 정도가 얼마나 섬세한지, 우리는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는, 마치 갓 탄 과일열매들과, 오븐에서 갓 나온 빵, 그리고 막 짠 레몬으로 만들어진 신선한 레몬에이드가 가득 펼쳐진 식탁과 같은 뚜렷한 장면으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축제를 수반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것 입니다. 이에 비취볼때, 이 말씀 속에서 축제와 관련해 언급된 직유적(smiles), 은유적(metaphors) 표현들과 문자적(literal) 묘사들의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만찬과 같은(like a banquet)것 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만찬 그 자체 입니까(or is it a banquet)?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비록 하나님 나라의 살롬은 잘 차려진 만찬 이상의 것을 의미하더라도, 그것보다 덜 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생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이사야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런 만찬이자 축제로 묘사된 다가오는 하나님나라의 샬롬(깊은 평안이자 모든 것이 올바른 위치에 있다는 깨달음)을 우리 삶 가운데 그려나가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 만약 구원(salvation)과 억압으로 부터의 해방(deliverance from oppression)이 축제와 같은 모습을 띄고 있다면, 그 식탁 위에서 당신 옆에 앉아 있는 자들을 누구 일 것 같습니까? 당신의 룸메이트나 직장동료, 혹은 이웃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한 때 당신이 싫어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닮은 자들로서 볼 수 있는 눈이 당신께 있습니까?
- 어떤 구체적인 음식들이 이 축제 가운데 제공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 음식의 조리법을 나눌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조리법들을 모으고 그것들을 함께 하는 그룹과 나눔으로서 이 축제 준비를 시작한다면 어떤 것 같습니까? 당신의 메뉴를 넓히세요!